



오비맥주, 책임 있는 음주문화 선도

- 건전음주문화 보급, 시각장애인 어울림축제 등 사회적 나눔실천
-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몽골 '희망의 숲' 조성 등 녹색경영 앞장

오비맥주는 주류회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나눔과 섬김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는 '착한 기업'이다. 회사 로고처럼 사용하는 회사의 기업문화 'PRIDE'의 'E'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의미하는 'Ethics'의 이니셜이다. 공장의 생산라인부터 일선 영업담당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일상 업무에서 나눔 문화를 생활화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에 앞장서고 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표방하며, 회사 경영활동 전반에 '녹색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다 온실가스 배출 절감 캠페인, 희망의 숲 가꾸기 등 다양한 환경관련 프로그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건전음주문화 보급에 솔선

오비맥주는 올바른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 사내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건전음주문화 봉사단'을 결성하여 공공기관이나 NGO단체 등과 연계한 '청소년 음주예방 캠페인', '음주운전예방 캠페인' 등을 펼치며 건전음주문화 보급활동에 힘쓰고 있다. 봉사단은 대도시의 소매점과 요식

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주류 구매 시, 신분증 확인을 습관화하자는 'Show ID' 캠페인을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 대입수학능력시험일 직후 시험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탈선과 사고를 막기 위해 강남 등 주요 상권을 돌며 '청소년 음주예방 거리 캠페인'도 진행해오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음주는 책임 있게!' 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민교통안전협회, S-OIL과 공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주제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앞으로도 전국 주요 도로의 주유소 등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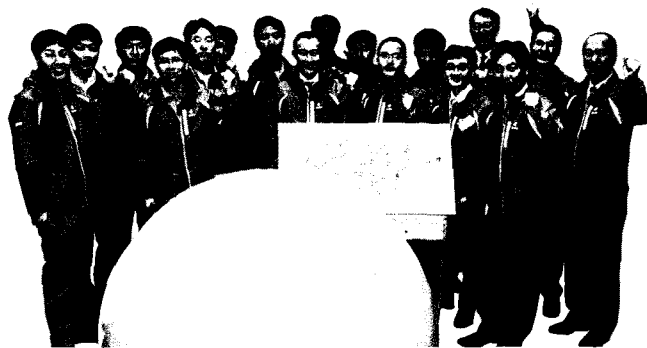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으로 환경생태 보전에 앞장

주력 브랜드이자 몽골지역 프리미엄 맥주 1위인 '카스'를 앞세워 2010년부터 몽골에서 '몽골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카스' 판매금액의 1%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모아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타워 아이막에르텐섬에 1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대규모 환경개선 프로젝트다.

동북아시아 황사 발생량의 50%를 차지하는 몽골의 '사막화'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제1의 수출국인 몽골을 대상으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이천·청원·광주의 3개 생산공장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몽골 희망의 숲 가꾸기' 환경봉사단을 선발하여 환경 출정식 행사를 가졌다. 오비맥주 환경봉사단은 첫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3박 5일간 몽골 에르텐 섬 지역에서 시민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희망의 숲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나서며 오비맥주 녹색경영의 본격시동을 알렸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최근 맥주 감동 스토리를 주제로 열린 오비맥주 주최 '맥주 UCC 공모전'에서 입상한 일반 소비자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오비맥주는 환경봉사단 발족을 계기로 매년 생산, 영업, 본부 순으로 봉사단원을 선발해 몽골 지역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공장 부근 하천정화 활동 등 '맑은 물 지키기'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친환경 공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성과'

가장 대표적인 환경프로그램은 생산공장에서 시행중인 '그린 세이빙 프로젝트'. 공장설비를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고 맥주 제조공정을 개선함으로써 CO2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오비맥주광주공장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35%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형 병커C유 보일러를 소형 가스보일러로 교체한 데 이어 보일러 연료를 친환경 LNG로 바꾸고 고효율공기압축기와 터보브로아 등을 새로 설치하는 등 친환경 녹색설비 위주로 공장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

제조공정에도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환경 친화적인 맥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전보다 20~30% 가벼운 경량병을 포장재로 사용하고 병뚜껍의 두께를 축소하는 한편 재활용 포장재 사용을 활성화해 친환경 녹색제품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환경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공장 별로 다양한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 채택된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교육과 에너지 누수방지 캠페인을 벌이는 등 그린 프로그램의 체질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4년째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 축제'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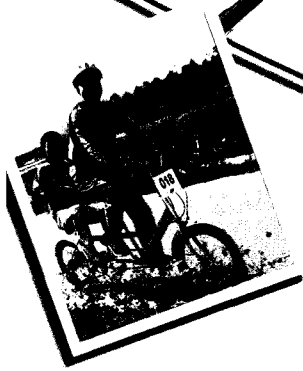
오비맥주 직원들은 2008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홀로 산행을 하거나 스포츠를 즐기기 힘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일 도우미'가 돼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과 함께 하는 어울림축제. 시각장애인 1명과 오비맥주 직원 1명이 한 팀을 이뤄 2인용 자전거인 텐덤사이클을 타며 오붓한 대화의 시간을 나누는 게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텐덤사이클은 사이클의 앞좌석에 '파일럿'이라 불리는 비장애인이 앉고 뒷좌석에 시각장애인이 탑승해 파일럿이 시각장애인을 대신해 사이클의 방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즐기는 스포츠다. 오비맥주 직원들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시각장애인 체험 교육'까지 이수해야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1명과 오비맥주 직원 1명이 한조가 되어 산에 오르는 등반행사도 병행한다. 올해는 북한산 둘레길을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홀로 스포츠를 즐기기 힘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생활의 활력과 자신감을 안겨주고 오비맥주 직원들은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중한 경험과 보람을 얻고 있다. 오비맥주는 시각장애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기획,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 경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본사 직원들, 매주 불우 이웃 돕기 위한 '만원의 행복' 등반

매주 금요일 새벽 본사 직원들이 등산을 한 뒤에 1인당 1만원씩 불우이웃 성금을 적립하는 '만원의 행복' 행사도 2008년도부터 거르지 않고 해오고 있다. '만원의 행복' 행사는 등산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과 팀워크를 챙기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요일 새벽 오비맥주 본사 직원들이 부서별로 번갈아가며 본사 인근의 우면산을 등반하



면 참여 직원 1인당 회사에서 1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모아 관내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700만원의 적립금을 모아 서초구청에 불우 독거노인 돕기를 위한 성금으로 전달했으며,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피해주민을 위해 재해구호협회에 2000만원의 적립금을 기탁했다.



호스피스 병동 및 사회복지시설 순회공연과 지역인재 돕기

2010년부터는 말기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한 '희망씨앗 나눔 호스피스 병동 순회 연주회'를 운영하고 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서울 강남성모병원 등 전국 주요병원의 호스피스병동을 돌며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위로하는 음악회를 열고 있다. 오비맥주사회공헌팀 관계자는 "환자와 가족 중에는 목관 5중주의 은은한 선율을 듣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다며 감사 표시를 하는 이들도 많다"며 "공연 때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보람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는 사회복지시설인 '은평의 마을'에서 요양 중인 정신지체 장애인과 행려병자 300여명을 초청하여 희망나눔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오비맥주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지역 인재의 육성·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맥주 보리를 연간 1만5000톤 수매하여 지역 농가활성화는 물론 지역출신 인재 채용을 통한 고용창출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민들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